6월 1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1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0.3%↑..연초 대비 상승 전환	미 증시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음. 다우지수는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미 증시 3대 지수 가운데 마지막으로 연초대비 상승세로 돌아섰음. 12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28.34포인트(0.32%) 상승한 8,799.26을 기록했다. S&P500 지수도 1.32포인트(0.14%) 올라선 946.21로 마감했음. 그러나 나스닥지수는 3.57포인트(0.19%) 하락한 8,799.26에 머물렀음. 국제유가가 4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원자재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이 커졌음. 반면 소비자신뢰지수가 9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지수를 지탱했고, 경기 방어력이 큰 블루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와 S&P지수가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음.
유럽 경기 부진, 유가 약세	유럽지역 경기 지표 악화와 달러화 반등 여파로 유가가 약세로 반전했음.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64센트(0.9%) 떨어진 72.04달러로 마감했음. 유럽연합(EU) 16개 회원국들의 4월 산업생산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1986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폭의 감소율임. 또 전문가들의 예상치 19.8%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임. 이에 따라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후퇴했음.
ADB총재 "亞 경제 올해 회복..韓·中·日 바닥	구로다 하루히코 ADB총재는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부양책 덕분에 지난 1분기 3~4%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4분기에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작지만 긍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말했음. 또 일본 경제 역시 가파른 침체 이후 올해 2분기 중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
日 메모리업체들, 가동률 일부 회복	르네스사테크놀러지 등 일본 주요 반도체업체들이 2분기 감산폭을 예정 계획보다 줄이면서 가동률이 늘고 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 이들 업체들은 전체 가동률의 40%만을 운영하겠다는 기존 계획에서 50%가량으로 소폭 늘리고 있음. 사실상 손익분기 달성을 위해서는 70~80% 가량의 가동률이 필요해 여전히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임. 그러나 칩 업체들 역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며 올 여름까지 60~70%까지 회복을 예상하고 있음.

제목	주요 내용
윤증현 "확장 정책기조 바꿀 단계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일부 경기지표와 금융시장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단계가 아니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소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상승 위험을 감안할 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 다만 2분기 국내 총생산(GDP)등이 나오는 다음달 하순께 정책기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해 국내외 경기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일 경우 정책기조의 수정을 검토해 나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음을 내비쳤음.
화물연대-대한통운, 교섭 타결.. 운송거부 철회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5시40분쯤 계약 해지자 복직 등의 사안을 담은 합의문을 대한통운과 작성하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번 합의문에는 계약 해지자들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채용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직 후에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지난 10일 최종 교섭 결렬의 원인으로 알려졌던 교섭주체는 예전 그대로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로 명기.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